<PPT 1쪽>

안녕하세요 한국의 여성시인들에 대해 발표하게 된 조명하입니다. 참고 논문으로 올려둔 한국현대여성문학사-시를 통해 한국 현대 여성시의 발전 과정을 알아봤다면, 오늘 발표에서는 구체적으로 시인들의 시를 함께 읽으면서 한국 현대 여성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논문은 현대문학사를 세 시기로 나누어 설명했는데, 한국 여성시의 다양한 모습을 살펴보기 위해 여성시의 활발한 성장기인 3기, 즉 1970년대 이후에 활동한 시인들의 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PPT 2쪽>

그 중에서도 제가 오늘 소개할 여성 시인들은 고정희, 허수경, 김언희, 진은영 시인입니다. 그리고 지난 주에 함께 봤던 최승자 시인의 시도 비교하면서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한국현대여성문학사-시에서는 3기를 7-80년대와 90년대로 나누어 설명했는데, 고정희, 최승자 그리고 아슬아슬하게 허수경 시인의 첫 시집이 7-80년대에 포함이 되고 김언희, 진은영 시인은 90년대 이후 최근까지 활발하게 작품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고정희, 허수경 시인은 시 속에서 역사적인 수난을 겪는 여성을 이야기하고, 최승자, 김언희, 진은영 시인은 타자화된 여성을 이야기한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계보를 정리해봤습니다. 그러면 이 시인들이 비슷한 주제의식을 가지고도 어떻게 개성적인 시를 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PPT 3쪽>

먼저 고정희 시인과 그의 시를 살펴보겠습니다. 고정희 시인은 1948년 전라남도 해남에서 태어나 1991년에 돌아가셨습니다. <누가 홀로 술틀을 밟고 있는가>부터 유고 시집인 <모든 사라지는 것들은 뒤에 여백을 남긴다>까지 총 11권의 시집을 발표했습니다.

<PPT 4쪽>

고정희 시인은 “광주에서 시대의식을 얻었고 한국신학대학에서 민중과 민족을 얻었고 [또 하나의 문화]를 만나 민중에 대한 페미니스트적 구체성을 얻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이 고정희 시인의 작품에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중심으로 고정희 시인의 시 세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5쪽>

먼저 고정희 시인과 광주의 인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정희 시인은 고향인 해남에서 다니던 교회에서의 인연으로 1970년부터 약 5년간 광주 YWCA에서 활동하게 되는데, 이것이 고정희 시인과 광주의 첫 번째 만남입니다. YWCA는 Young Women’s Christian Association의 약자로 기독교 여자 청년회입니다. 이때 독서클럽에서 활동하기도 하고 전남대와 조선대 소속의 YWCA 회원들이 교육도 맡았다고 합니다. 1979년에는 광주에서 동인 모임 <목요시>를 만들어 활동하면서 첫 시집 ‘누가 홀로 술틀을 밟고 있는가’를 발표합니다. 이 과정에서 여성 시인으로서 사회의 편견과 부딪히게 됩니다. ‘누가 홀로 술틀을 밟고 있는가’의 초판은 발문 없이 발간되었습니다. 고정희 시인이 이하석 시인에게 발문을 부탁했으나 읽어 보지 못한 채 출판되어 나중에야 발문을 읽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자궁’이라는 모성을 상징하는 시어를 남성중심적인 시각으로 처녀가 성관계만을 갈구하는 것으로 해석해 너무 놀라 <목요시> 동인들과 함께 발문 부분을 모두 칼로 잘라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집의 제목에 있는 술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틀이라는 뜻의 단어인 ‘술틀’을 자수를 할 때 사용하는 ‘수틀’로 바꿔서 말하거나 썼다고 합니다. 고정희 시인이 작가인 자신이 아무리 술틀이라고 고쳐 말해도 활자화된 것은 어김없이 수틀로 나오곤 했다며 바로 그것이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의 반영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를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사회의식이 너무 강하다”, “여성답지 못하다”, “순수시를 써야 한다”는 개인적인 충고를 많이 받았다고도 합니다.

1년 뒤, 광주민주화항쟁이 일어나지만 고정희 시인은 1980년 이른 봄에 광주를 떠났기 때문에 20대를 보낸 고향 같은 광주의 아픔을 함께하지 못했다는 부채의식을 중심으로 시적 자아를 확장시켜 나가게 됩니다. 특히 같은 목요시 동인이던 김준태 시인이 <전남매일>에 광주항쟁 시 ‘아아 광주여 우리나라의 십자가여’ 를 발표하고 보안대에 끌려갔고 근무하던 전남고등학교에서 강제해직 당하고 전남 매일은 언론 검열에 걸려 본문의 2/3 이상이 잘려나가게 됐습니다. 고정희 시인은 바로 곁에서 이러한 사건을 지켜봤으므로 광주항쟁의 문학적 형상화에 대한 책임을 느꼈습니다. 그로부터 1년 뒤 1981년에 발간된 <목요시집> 제3집 머리말에서 시인이 감당해야할 역사적 역할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보입니다.

<PPT 6쪽>

**인용문**

이 시점에 군부독재 시대에 맞서기 위해 시와 시인의 역사적 역할에 대해 각성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PPT 7쪽>

아까 고정희 시인이 광주 YWCA에서 약 5년간 활동했다고 했는데요, 1975년부터 다시 광주에 돌아가 목요시 활동을 하는 1979년까지 고정희 시인은 한국신학대학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당시 한국신학대학에서 공부했던 경험을 쓴 시 ‘화육제 별사6-기를 찢으시다’를 통해 여기서 얻은 ‘민중’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PPT 8쪽>

**‘화육제 별사6-기를 찢으시다’**

이 시기 한국 기독교계의 관심은 성서의 교리나 상황을 민중적 관점에서 재해석하여 예수의 해방이나 구원을 현실에서 이룩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은 해방신학적, 민중신학적 관점과 실천에 있었습니다. 실제로 당시 한국신학대학 학생들은 전국 최초로 반정부 시위를 전개해서 정부가 시위에 가담한 학생들을 제적하라고 협박했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학교장이 예배 설교 중에 독재정권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면도칼로 강단에 있던 교기를 긋고 제적당한 학생들이 돌아오면 그 인원수대로 한 땀씩 잇겠다고 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고스란히 ‘화육제별사(化肉祭別詞)6 –기를 찢으시다’에 담겨 있습니다. 고통받는 ‘우리’의 상황과 임마누엘이라는 글자가 분절된 상황을 같이 보여주면서 민중과 예수가 함께 고통받는 입장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한국신학대학에서의 공부로 고정희 시인의 기독교적 세계관과 시대의식이 결합할 수 있었습니다.

<PPT 9쪽>

광주항쟁을 겪고 난 후 고정희 시인은 ‘예수와 민중과 사랑 그리고 詩’라는 글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예수의 모습은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의 고통과 죄를 두 어깨에 무겁게 지고 죽음의 골짜기에 오른 사람”이며 이를 “민중의 예수”라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고정희 시인에게 “민중”은 기독교 사상에 바탕을 둔 것으로 고난 속에 처해 있는 사람들과 이들의 고통을 자신의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두루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아까 고정희 시인이 고향과도 같은 광주의 아픔을 함께하지 못했다는 부채감에 광주항쟁의 문학적 형상화를 절실하게 느꼈을 것이라 말했는데, 광주항쟁과 이 민중의 예수 개념을 염두에 두고 고정희 시인의 ‘상한 영혼을 위하여’를 읽어보겠습니다.

<PPT 10쪽>

**상한 영혼을 위하여**

이미 상한 갈대라도 한 계절 넉넉히 흔들립니다. 뿌리가 깊다면 밑둥쯤은 잘려 나가도 다시 새순이 돋습니다. 현재 상황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이미 스스로가 상처입었더라도 이 고통과 설움의 땅을 지나면 눈물과 비탄이 그칠 것이라는 희망적이고 위로가 되는 메시지가 느껴집니다. ‘가자 고통이여 살 맞대고 가자’라는 구절에서는 기꺼이 고통을 짊어지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착한 곳은 벌판일 뿐, 이미 만들어진 낙원이 아닙니다. 그곳으로 마주잡을 손이 하나 오고 있거니 믿습니다. 지금의 눈물과 비탄을 그칠 수 있는 곳은 저절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와 함께 만들어나갈 곳이라는 생각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자유를 누릴 수 없는 현실에서 자유를 믿고 우리 스스로 만들어 나가자는 의지를 시에서 느낄 수 있고 결국 고통받는 민중들이라고 생각되는 ‘상한 영혼’과 이들에게 ‘고통에게로 가자’고 말하는 화자 모두 고정희 시인이 생각하는 ‘예수’의 모습입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이 시를 쓴 광주항쟁 직후까지만 해도 ‘여성’에 대한 문제의식은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PPT 11쪽>

고정희 시인의 여성주의 의식을 발전시키는 데에는 1984년부터 1991년까지 참여한 [또 하나의 문화] 활동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또 하나의 문화]는 “남녀가 평등하고 진정한 벗으로 협력할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하며 대안적 문화를 사회에 심음으로써 유연한 사회체계로의 변화를 이루어 나갈 것”을 지향한 동인 모임입니다. 또 하나의 문화와의 만남 이후 고정희 시인에게 “여성”의 문제가 화두로 올라오게 되었는데 고정희 시인이 이 시기에 여성문제와 문학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잘 드러나는 말을 인용했습니다.

<PPT 12쪽>

**인용문**

여기서 주목할 것은 여성의 문제를 단순한 남성 여성간의 대비로 보지 않는 것과 역사 속에서 여성 문제를 포착하고 재해석해야한다는 주장입니다. 잘 살펴보면 이것은 또문의 지향점인 남녀평등한 사회를 지향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 가부장제의 대안적인 문화를 찾으려는 것과 일치해서 또문 동인모임의 영향력이 고정희 시인에게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습니다. 고정희 시인은 1988년부터 <여성신문> 담당자가 되었는데, 이때 쓴 편지글을 살펴보면 고정희 시인이 여성문제를

**인용문**

을 알 수 있습니다.

<PPT 13쪽>

고정희 시인이 포착한 여성 문제가 잘 드러나는 시로 우리 동네 구자명씨 를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동네 구자명씨’는 저는 중학교 교과서에서 공부했던 기억이 나는데, 한국 학우분들은 대부분 이 시를 알 것 같고, 외국 학우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네 구자명 씨**

맞벌이 부부여서 육아와 가사일과 직장 일을 동시에 하느라 고통받는 여성의 삶을 보여줍니다. 이 시대에 당연시했던 여성에게 주어지는 부담을 문제적으로 포착했다는 것을 이 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계절이 지나도록 시간이 흘러도 피곤해서 조는 모습은 그대로이고 ‘하루의 시작과 끝에서 잠 속에 흔들리는’이라는 표현을 봤을 때 출근 버스에서뿐만이 아니라 퇴근 버스에서도 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팬지꽃 아픔, 안개꽃 멍에는 예전에 이 시를 읽었을 때에는 그냥 꽃에 비유한 것이구나 하고 넘어갔는데 이번에 꽃말을 좀 알아봤습니다. 팬지꽃은 ‘나를 생각해 주세요’가 꽃말이어서 가족 구성원 중 구자명 씨의 아픔을 생각해 주는 사람이 없음을 의미하고, 안개꽃은 ‘영원한 사랑’이 꽃말이고, ‘멍에’는 쉽게 벗어날 수 없는 억압이나 구속을 의미해서 가족을 사랑한다면 영원히 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학교에서 이 시를 배웠을 때는 ‘죽음의 잠을 향하여 거부의 화살을 당기고 있다’는 표현이 여성들이 이중으로 받는 고통을 비판하는 것이라고 배웠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다시 읽어보니까 ‘여자가 받쳐든 한 식구의 안식이 죽음의 잠을 향해 거부의 화살을 당기고 있다’가 연결되는 것 같아서 이 가족이 편안하게 살 수 있게 돌봐주려면 죽은 듯이 자고 싶어도 잘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PPT 14쪽>

고정희 시인이 광주에서 얻은 시대의식, 한국신학대학에서 얻은 민중 개념, 또 하나의 문화에서 얻은 페미니스트적 구체성이 모두 합쳐져 ‘어머니 하느님’과 ‘주먹밥’이라는 고정희 시인만의 상징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먼저 눈물의 주먹밥을 읽어보겠습니다.

**눈물의 주먹밥**

여기서 주먹밥은 저승 사자도, 형제자매도 눈물을 흘린 주먹밥입니다. 먹으면 불기둥이 일어서고 나누면 영산강이 굽이치는 신성한 힘이 있는 것처럼 그려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머니가 사랑과 피눈물로 버무리고 자매들의 통곡으로 간을 맞춘 주먹밥입니다. 이 주먹밥을 인류의 주먹밥으로 나눈다는 것은 어머니와 자매들의 사랑이 모든 인류를 포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월의 종말론적 강물이여’라는 구절과 학동, 양동, 화정동 등의 지명에서 눈치챌 수 있듯이 이 시는 광주항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가 쓰여지고 ‘어머니 하느님, 눈물의 주먹밥’이라는 상징이 만들어지는 데에는 고정희 시인이 1988년에 쓴 ‘광주 민중항쟁과 여성의 역할:광주여성들, 이렇게 싸웠다’라는 기사의 취재 경험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이 기사에서 주먹밥을 다룬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PPT 15쪽>

**기사 인용문**

이 기사는 주부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주먹밥”으로 엮어진 주부들과 광주 시민들의 “식사의 연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취재 경험을 통해 기독교적 세계관과, 광주항쟁이라는 역사적 사건, 그 사건을 겪은 여성의 체험이 모두 합쳐서 ‘어머니 하느님’이라는 고정희 시인만의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희망, 예수의 모습이 만들어지고 어머니 하느님과 민중은 ‘주먹밥’을 통해 연결됩니다. 이처럼 고정희 시인은 어머니의 모성이 인간성을 회복하고 공동체가 하나로 뭉쳐 고통스러운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라고 믿었습니다.

<PPT 16쪽>

지난 시간에 함께 읽었던 최승자 시인도 고정희 시인과 함께 여성시의 선구자로 불립니다. 그런데 이 두 시인이 어두운 시대에 저항하는 방식은 사뭇 다른데요, 최승자 시인의 ‘일찍이 나는’을 통해 최승자 시인은 이 현실을 어떻게 이겨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일찍이 나는**

이 시에서 ‘나’는 곰팡이, 오줌 자국, 시체와 같은 이미 죽어버린 것들로 스스로를 설명하고, 태어날 때부터 맺어지는 관계인 ‘부모’와의 관계도 단절되어 있고, 살아가는 것을 ‘죽어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잠시 스쳐갈 때 그러므로’라는 구절입니다. 다른 사람과 진정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스쳐 지나가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는 서로를 알 수 없고, 그래서 내가 살아 있다는 것은 실체가 없는, 영원한 루머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른 사람과 내가 진정한 관계를 맺지 못하는 건, 곰팡이, 오줌 자국 같은 것들이 진정한 나인데, 이런 나를 다른 사람들이 알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최승자 시인은 “칠십년대는 공포였고/팔십년대는 치욕이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주에 이야기한 것처럼 아비투스에서 벗어나 나를 정확하게 보는 것을 끊임없이 고민한 최승자 시인의 문제의식을 염두에 두고 이 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자 시인은 남성중심적이고 이성중심적인 근대가 폭력적으로 지정해 둔 자신의 위치를 끊임없이 부정합니다. 법이나 제도, 가부장제 속에 속하는 무언가로 스스로를 칭하지 않고, 세계가 배척하는 것들인 곰팡이, 오줌 자국, 시체와 같은 것들로 스스로의 정체성을 세웁니다. 이런 방식으로 1980년대 정치적 탄압과 억압에 저항하는 것이 최승자 시인이라고 생각합니다.

<PPT 17쪽>

허수경 시인은 1964년에 태어나 2018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슬픔만한 거름이 어디 있으랴>부터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역에서>까지 총 6권의 시집을 발표했고, 첫 시집인 <슬픔만한 거름이 어디 있으랴>가 아슬아슬하게 1989년에 발표됩니다. 허수경 시인은 이 시기에 역사적 수난을 겪는 여성들을 어떻게 형상화하는지 ‘폐병쟁이 내 사내’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PPT 18쪽>

**폐병쟁이 내 사내**

이 시의 화자는 폐병쟁이 사내를 순수하고 자발적인 마음에서 도와주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지는 내 할미, 어미의 의지를 계승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허수경 시인이 1960년대에 태어난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 할머니와 어머니는 6.25전쟁을 경험한 세대이므로 ‘대처에서 돌아온 지친 남정들 머리맡 지킬 때’의 이 남정들은 6.25전쟁에 참전했던 사람들을 의미하고, 이 폐병쟁이 사내는 80년대 정권의 폭력에 다치고 병든 사람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허수경 시인은 전쟁을 겪은 세대이든 겪지 않은 세대이든 시대의 폭력에 당한 사람들에 대한 여성들의 모성의 내력이 다친 사람들에 대한 돌봄으로 모든 세대에 공통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포착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어디 내 사내뿐이랴’라는 구절에서 허수경 시인이 생각하는 모성은 남성/여성의 성 차이를 넘어서서 세상의 모든 약하고 소외받은 이들을 수용하고 포용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살펴본 고정희 시인의 ‘어머니 하느님’과 기독교적 세계관만 빼면 매우 유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PPT 17쪽>

허수경 시인의 시집은 시기에 따라 핵심 주제가 바뀌어서 초기, 중기, 후기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집 <슬픔만한 거름이 어디 있으랴>를 초기 시, <혼자 가는 먼 집>과 <내 영혼은 오래되었으나>를 중기 시, <청동의 시간, 감자의 시간>, <빌어먹을 차가운 심장>,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역에서>를 후기 시로 분류해 각 시기별 시들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PPT 19쪽>

초기 시에서는 일제 강점기와 6.25 전쟁, 80년대의 독재와 억압 등의 역사 속 소외된 민중의 삶과 이러한 사건들이 세대 갈등으로 계속해서 민중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허수경 시인의 초기 시에서 남성, 특히 아버지는 전쟁에 동원되고 육체적인 피해를 입고 희생을 당하는 인물이면서, 가정과 가족의 안위를 위해 어느 이념도 선택하지 않고, 현실에 타협하는 나약한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에서 끊어지지 않은 역사적 현실의 위태로움은 자녀 세대인 ‘나’ 때에 와서도 지속됩니다. 이때 전쟁을 직접 체험한 아버지 세대와 전쟁을 겪지는 않았으나 1980년대 독재정권을 맞이하여 몰래 사회운동을 하는 ‘딸’인 시적 화자의 갈등이 시간이 흘러도 끝나지 않는 민중의 고통으로 나타납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시로 ‘우리는 같은 지붕 아래 사는가2’를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같은 지붕 아래 사는가2**

‘나’는 군부독재의 부조리함을 아버지에게 얘기하지만 아버지는 “어머니의 관절염은 어찌하지”라며 외적 현실보다는 가족의 안위를 걱정합니다. 아버지는 이미 6.25전쟁 때 동료들을 숱하게 잃어 보았기 때문에 “시대”는 항상 민중들의 삶을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깨달았고 따라서 아버지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가족의 평안과 안위를 챙기는 것이며 그것이 “건강”함입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이러한 아버지의 태도가 무기력하게만 보입니다. 결국 세대가 교체됨에도 불구하고 안정되지 않은 시대와 사회로 인해 대립하고 갈등하는, 희생의 몫은 여전히 민중에게 넘겨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문제 의식이 드러납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억압’, ‘폭력’ 등의 사건 자체를 내세우기보다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민중들의 구체적인 삶에서 나타나는 상처와 그 내력에 집중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서 아버지는 ‘나’와 소통이 안 되는 기성세대의 상징이지만, 마지막 연에서 ‘나’만 아버지가 혹시 나를 신고하지는 않을까 불안해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도 내가 잡혀갈까봐 불안해 한다는 것에서 아버지가 소통의 시도조차 허용되지 않는 막무가내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허수경 시인의 시각에는 무력한 장년인 아버지에 대한 연민의 감정이 바탕에 깔려 있고 이 연민의 감정이 허수경 시인의 시가 모성으로 상처입은 모든 존재를 따듯하게 포용할 수 있는 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PPT 20쪽>

중기 시를 발표한 이 시기에 시인은 독일 뮌스터대학에서 고대 근동(메소포타미아 문명) 고고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같은 대학 독일인 지도교수와 결혼해 독일에 정착합니다. 이 시기의 시들은 독립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길을 홀로 걷는 고독한 개인으로서의 면모가 부각됩니다. 자기 내면 탐구에 몰두하면서 사랑의 실패로부터 겪는 상실감이나 고향을 떠나 서울과 독일에 사는 이방인으로서의 외로움이 주제가 됩니다. 저는 이 중기 시 중에서 함께 살펴볼 시로 ‘나는 어느 날 죽은 이의 결혼식을 보러 갔습니다’를 가져왔습니다. 사랑의 실패를 받아들이는 태도에 주목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어느날 죽은 이의 결혼식을 보러 갔습니다**

여기서 ‘죽은 이’를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이 시를 이해하는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의 실패가 이 시의 화자가 겪은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전 남자친구’를 의미한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의 실패로 미련이 남기도 하고 내면의 상처가 아물지 않아 나는 한동안 노래를 할 수 없었던 상태인 것 같습니다. 나와 관계가 끊어진 사람의 결혼식을 보러 가서, 신랑의 심장 자리에 신부의 자궁이 들어가 있는 것을 봅니다. 생명 유지 기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심장의 자리에 신부가 들어가 있다는 것은 서로 목숨을 줄 만큼 사랑하는 모습을 봤다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나는 ‘다시’ 노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랑 한때 연인이었던, 혹은 관계를 맺었던 사람이 이제는 다른 사람을 목숨까지 바칠 수 있을 만큼 사랑하는 모습, 가정을 꾸리는 모습을 지켜본다는 건 참 자존심도 상하고 가슴 아픈 일이고, 정말 죽었다고 생각해도 될 만큼 나와는 다시는 만날 일이 없는 사람, 완전한 관계의 끝맺음인데, 이 사건을 목도하고 나는 다시 노래를 할 수 있게 됐다는 긍정적인 표현으로 나타낸 점이 인상깊어서 이 시를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PPT 21쪽>

허수경 시인은 후기시에서 전쟁을 겪지 않은 세대의 여성시인으로서는 드물게 계속해서 세계사의 맥락에서 자국과 타국의 전쟁과 그 피해의 고통에 대하여 다루면서,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전쟁의 비참한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허수경 시인은 세계대전의 참상을 기억하려고 노력하는 독일로의 유학과 유럽과 아시아의 통로이자 격전장이었던 근동 아시아의 고고학적 탐구에서 탈식민주의와 평화주의를 얻었습니다. 특히 고고학자로서 유물을 발굴하고 해석하는 작업에서 영향을 받아, 세계의 통시적 사건들을 시 속에 공시적으로 동시에 존재하게 만듦으로써 과거와 현재가 겹치는 방식으로 시를 서술합니다. 이런 특징이 잘 드러나는 시로 카프카 날씨2를 가져왔습니다.

**카프카날씨2**

이 시는 “고대의 여름”이 발신한 편지를 “현대의 겨울”이 읽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날아가던 총알에 아이의 심장이 거꾸러져도/ 아무도 그 심장을 거두지 않던 오후” 의 시간을 보내는 세상의 시간을 “이상하게 빠른” 시간이자, “가벼워서 낯설디 낯선 시간”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폭력적인 시간은 멈추고 싶어도 사람의 힘으로 멈출 수 없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고정희 시인과 허수경 시인의 다른 점은 허수경 시인의 후기 시에 와서는 더 이상 모성을 이 세계를 구원할 수 있는 힘으로 그리지 않습니다. 폐병쟁이 내 사내에서는 할머니, 엄마, 내가 모두 모성을 가진 존재였는데, 마지막 시집에 수록된 <엄마와 나의 간격>이라는 시에서 보면 내가 엄마와 별개의 존재임을 절절히 깨닫고 있습니다. 정체성에 대한 고민과 계속해서 전쟁과 폭력이 지속되는 이 세계를 마주하면서 모성이 누구에게나 있는 자연스러운 것도 아닐 뿐더러 모성의 연대로는 이 거대한 세계의 폭력을 멈추는 데 역부족이라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수경 시인은 이 세계를 회피하지 않고 “여기에서” 더 이상 아프거나 쓰라리지 않는 “따듯하게 사랑하며 사는 세계”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계속해서 시를 썼고, 이것이 허수경 시인의 시의 정신입니다.

<PPT 22쪽>

보너스로 제가 허수경 시인의 마지막 시집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역에서>를 읽다가 재미있다고 생각한 시를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라일락인데요, 최근에 아이유가 발표한 노래 라일락과 제목도, 내용도 비슷해서 신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라일락**

아이유의 라일락은 아이유가 올해 29살이어서 자신의 20대를 보내면서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허수경 시인의 라일락도 ‘웃으면서 몰락하는 것, 스크랩북 안에 든 오래된 사진이 정말 죽어버리는 것에 대해 웃어버리는 것, 웃다가 지는 것’으로 묘사한 걸 보면 이별의 순간을 웃으면서 맞이한다는 점은 공통적인 것 같습니다. ‘날 속인 모든 바람을 향해, 스크랩북 안에 든 오래된 사진’같은 구절에서 애인과의 이별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봄바람에 라일락 꽃잎이 떨어지는 것을 ‘내 생애의 봄날 다정의 얼굴로 날 속인 모든 바람을 향해 신나게 웃으면서 몰락하는 거야’ 라고 표현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실 라일락은 질 때가 가까워질수록 더 짙은 향기를 풍기고 지는데 그 향기를 웃음이라고 표현한 것 같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PPT 23쪽>

다음으로 김언희 시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언희 시인은 1953년 경남 진주에서 태어나 1995년 첫 시집 <트렁크>를 발표한 이후, 작년, 2020년에 <GG>를 발표하는 등 활발하게 작품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김언희 시인의 시집를 읽었을 때 너무 놀랐고 하루종일 충격을 가시지 않아서 혹시 학우분들도 그러실까봐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김언희 시인의 시에 대한 평론도 함께 올렸었는데 다들 읽어 보셨나요? 그 평론에 보면 김언희 시인의 시어가 단순히 시선을 잡아끌기 위해, 튀어보기이기 위해 엽기적인 이미지를 마구잡이식으로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우분들께서 제출하신 참고 논문에 대한 질문 중 왜 한국의 여성시에는 참혹한 현실에 절규하는 모습, 적극적으로 자해를 표출하는 모습이 많이 나타나는지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요, 그에 대해 김언희 시인의 대답을 들어보겠습니다.

<PPT 24쪽>

김언희 시인은 자기가 왜 노골적인 시어를 사용하는지, 왜 훼손된 육체를 내세워 공포와 혐오감을 조장하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인용문**

김언희 시인은 자신의 시를 그저 시가 가는 대로, 솔직하게 쓰는 것뿐이라고 말하기도 했고, 그렇게 하기 위해 딸들에게 자신의 시집을 읽지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혹시 딸들이 자신의 시집을 읽으면 스스로가 자기검열을 하게 될까봐. 그리고 자신이 세상을 느끼는 대로 보는 대로 써서 그런지 마음의 병으로 문학 치료를 받는 사람들에게 김언희 시인의 시가 인기가 있다고도 합니다. 김언희 시인은 타자화된 여성을 어떻게 형상화했는지 시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PPT 25쪽>

**가족극장, te**

여기서 아버지는 실제의 아버지라기보다는 ‘아버지’라는 권위입니다. 아버지는 나에게 사과를 던지고, 그 위에 식칼을 꽂는 폭력적인 존재이고 ‘박은’ 과거, ‘박는’ 현재, ‘박을’ 미래에 같은 행위를 반복합니다. 이 시에서 ‘내’가 아들인지 딸인지는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폭력의 대상이 얼굴로부터 가슴, 자궁으로 이동하는 것을 통해 아버지의 폭력이 가족 구성원인 ‘딸’에게 향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폭력을 동반한 법이라면 딸은 그 법의 대상이 되는 약자입니다. 김언희 시인은 마블 세계관의 히어로인 닥터 스트레인지를 얘기하면서 왜 이렇게 폭력적인 현실을 이야기하는지 밝힙니다. 닥터스트레인지는 시간을 되돌려 “도르마무 거래를 하러왔다”를 반복하다 마침내 괴물을 굴복시킵니다. 마찬가지로 김언희 시인도 “내가 쓰기를 멈추지 않는 한, 너는 나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생각으로 공포와 폭력을 계속해서 마주하고 써내려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이런 권력 관계를 전복하는 상상력을 보여주는 시 ‘랄랄랄2’를 읽어보겠습니다.

<PPT 26쪽>

**랄랄랄2**

보통 고양이가 포식자고 쥐가 피식자인데, 이 시에서는 쥐가 고양이를 겁탈하므로 관계의 전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적으로 관계를 전복한다는 점에서 여성과 남성의 대비를 떠오르게 하고, 앞의 시를 떠올려 본다면 아버지를 겁탈하는 딸의 이미지를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쥐가 고양이를 겁탈하는 일은 현실에서 불가능합니다. 이 쥐의 인생이 ‘피를 보고서야 멈추는 농담’이라는 것과 쥐가 고양이에게 사정한다는 것은 사실 쥐가 고양이에게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고 공포에 젖어 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 사정은 극한의 공포를 마주했을 때 생명 보존의 욕구에서 분출되는 것이기도 하고 두 번째 사정은 포식자에게 살려 달라고 사정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양이를 겁탈하는 쥐로서 자신을 정의한 것은 아버지와 딸의 관계를 전복하고자 하는 저항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 현실에서 관계의 전복은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절망적 상태를 랄랄랄이라는 반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렇듯 계속해서 피식자의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는 약자로서 시인은 스스로를 해체되는 존재로 바라봅니다.

<PPT 27쪽>

**......?**

사실 이 시의 화자는 해부용 개구리입니다. 작가는 마취 풀린 해부용 개구리를 관찰하면서 인간의 실험 대상이 된 개구리에게 봉합되지 않는 것이 너의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몸 내부의 장기가 주르륵 흘러내리는 모습을 문장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고 끊기도록 배치해서 형상화한 것도 보입니다. 이 시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대립보다는 해체된 육체와 세계의 대립이 나타납니다. 이 세계가 ‘나’의 위치를 해부용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나는 해부용 개구리로 절개되는 인생을 사는 것이라는 생각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김언희 시인은 여성성과 남성성을 단순하게 대비하지 않고 폭력적인 세계와 권력 자체를 비판합니다. 이런 생각은 김언희 시인이 생각하는 ‘어머니’가 ‘아버지’보다도 더 공포의 대상인 것에서 잘 드러납니다.

<PPT 28쪽>

**인용문**

앞의 고정희 시인과 허수경 시인은 모성이 이 세계를 치유하는 힘이 될 수 있다고 본 반면, 김언희 시인은 모성 역시 가부장제가 만들어낸 억압이라고 봤습니다. 따라서 김언희 시인이 몸을 해체하는 것은 기존의 이데올로기를 걷어내고 진정한 의미의 여성성을 찾으려는 시도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방식을 여성의 몸을 부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하기도 하지만 여성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고, 여성의 위치가 얼마든지 역전 가능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PPT 29쪽>

마지막으로 진은영 시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진은영 시인은1970년 대전에서 태어나 철학을 전공한 시인이자 철학자입니다. 일곱 개의 단어로 된 사전, 우리는 매일매일, 훔쳐가는 노래 세 권의 시집을 발표했습니다. 진은영 시인이 철학을 공부한 이유는 시를 잘 쓰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PPT 30쪽>

시인은 철학의 개념이나 어휘는 현실로부터 거리를 둔 개념어이고 이와 마찬가지로 섬세하고 순수하게 정제해낸 언어로 세계를 구성해서 사유하는 방식은, 허덕거리는 고통에서 거리를 유지하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 거리를 갖게 되면 세상을 다른 방식으로 볼 수 있어요.”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진은영 시인의 시에서는 상투적인 단어를 시인만의 시각으로 새롭게 발견하는 재미를 찾을 수 있는데, 그 예시로 일곱 개의 단어로 된 사전을 읽어보겠습니다.

<PPT 31쪽>

**일곱 개의 단어로 된 사전**

진은영 시인에게 시 쓰기란 자기만의 언어로 내면세계를 표현하는 것이었고, 그 자체로 치유가 되었다고 합니다. 상투적인 표현을 벗어나, 어떻게 하면 나만의 방식으로 얘기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전혀 사랑스럽지 않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누추한 현실 속에서 불현듯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게 시인인 것 같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시에서도 문학과 시인을 희망적인 것으로 정의하는 것에서 시인의 생각을 엿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시에서 가장 마음에 와 닿았던 구절은 시를 정의하는 구절입니다. 시는 일부러 찾아서 읽어야 하는 글이기도 하고 시인으로서는 성별도 나이도 심지어 존재도 알지 못하는 독자라는 존재를 가정하고 쓰는 글이라는 점에서 시를 절묘하게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본인은 시인임에도 불구하고 독자의 입장에서 ‘일부러 뜯어본’ 것이라고 표현해서 더 와 닿는 것 같습니다. 진은영 시인이 시인으로서 스스로 생각하는 자기의 시란 무엇인지 이전 시들과 이번 시 사이의 고요한 거리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PPT 32쪽>

**이전 시들과 이번 시 사이의 고요한 거리**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전 시대의 시와 지금 이 시대의 시의 거리감을 이야기하는 시입니다. 지금의 시에는 이전 시대의 시가 추구했던 통일성과 같은 가치들이 없고 오히려 그럴싸한 것이 아니라 돌보지 않아 오래도록 쌓인 먼지, 병의 징표, 실수의 흔적, 쓸모없는 것들이 시라고 말함으로써 시가 가치 있는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깨뜨립니다. 그리고 이전 시들과 이번 시 사이에 흐른 시간이 쌓이지 않고 흩어져 버려서 어떠한 연결도 없이 단절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그렇다고 진은영 시인이 시에서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가치를 배제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진은영 시인은 시의 정치성에 대해 고민한 대표적인 시인으로, 이 시는 이전과는 다른 언어로 다른 주체를 다른 세계 속에 그리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PPT 33쪽>

최승자 시인은 사석에서 진은영 시인을 두고 “드디어 나를 정말로 잇는 시인이 나왔다”라고 말했다는 이야기가 있고, 진은영 시인은 두 번째 시집 <우리는 매일매일>의 서두에 ‘우리들의 시인 최승자에게’ 라는 글을 쓰기도 하고 자기가 시인이 된다면 최승자 시인 같은 고통과 기쁨을 겪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진은영 시인과 최승자 시인의 시를 함께 읽어보려고 하는데, 여기서 제가 비교하는 시들이 서로 주제의식을 공유한다는 점 때문이라 너무 단순하고 일차원적이라는 반성을 하는 중입니다. 그래도 진은영 시인이 최승자 시인의 시에서 영감을 받았다는 것은 잘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PPT 34쪽>

**꿈꿀 수 없는 답답함->추락**

최승자 시인의 꿈꿀 수 없는 답답함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조차도 자신의 의지대로 할 수 없는 답답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진은영 시인의 추락에서도 실제로 추락하는지의 여부는 보이지 않고 단지 떨어지고 싶다는 바람만 나타납니다. 진은영 시인의 추락은 높은 데서 떨어져서 하수구 바닥에 모인 쥐떼에게 목례하고 암매장된 부랑자의 뼈를 어루만지고 싶다고 합니다. 따라서 소외받는 자들에게 다가가고 싶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고, 이처럼 추락을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는 점에서 최승자 시인의 꿈꿀 수 없는 답답함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집을 바라보는 두 시인의 시선이 잘 드러나는 시를 살펴보겠습니다.

<PPT 35쪽>

**파괴의 집->가족**

최승자 시인의 파괴의 집은 집을 사방으로 바람 파도에 포위된, 누울 곳이 없는, 마치 감옥 같은 곳으로 묘사합니다. 여기에서 인상 깊었던 점은 없는 꿈과 있는 현실 사이에 바람 소리가 있다는 구절이었습니다. ‘없다’는 것과 ‘있다’는 것은 사실 그 사이에 중간이 없는 단절된 개념인데 그 사이에 내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다고 표현하면서 화자에게 집이 안전과는 거리가 멀고, 심지어 ‘집’이라는 개념이 존재하기는 하는지 의문을 갖게 하기 때문입니다. 진은영 시인의 가족에서도 집은 집에만 가져가면 꽃과 화분이 다 죽는, 죽음의 공간으로 그려집니다. 두 시인은 공통적으로 타자의 시선에서 집을 보여줍니다. 최승자 시인은 집에 누울 곳이 없는 모습을 통해 스스로가 집에 소속되지 않는 타자가 되었음을 보여 주고, 진은영 시인은 꽃과 화분이 집에서는 다 죽는 모습을 통해 ‘집’이라는 개념이 가족 구성원이 아닌 다른 존재를 배척하는 개념이 될 수도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실 진은영 시인이 말하는 타자화된 여성은 이 가족 구성원 안에서의 여성으로, 시 속에서 스스로를 아버지에게 ‘유괴’되었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진은영 시인의 시에 대한 평론 중에는 시인의 상상력을 마음껏 펼치기 바라면서 여성성에 대해 다루지 않은 시도 매력적이라는 평이 있었는데, 저도 그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진은영 시인의 시 중에서 제가 소개하고 싶은 시 푸른색 reminiscence를 읽고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PPT 36쪽>

**푸른색 reminiscence**

만약에 저였으면 챙겨야 할 가족 기념일이 연달아 있어서 챙기기 피곤하겠다는 생각만 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연속된 날짜를 보고 시간의 흐름을 떠올리는 시인의 상상력이 톡톡 튀어서 함께 읽고 싶었습니다. 잘 보면 보통은 원판을 돌리고 다트 화살을 던지는 게 시간 순서가 맞는데 다트 화살을 던지고 나서 시간의 오색판이 돌아간다고 표현한 점도 재미있고, 진은영 시인이 시인이니까 3월 17일이 시를 쓰는 것이고, 윤정숙 결혼 기념일이 한 남자를 사랑한 것이겠고, 그렇다면 동생이 태어난 것을 혁명에 실패한 것으로 표현했나? 싶어서 또 재미있게 생각했습니다. 인과관계를 따지지 않고 그저 사건만 날짜대로 나열하면 이렇게 재미있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추억이라는 쓰레기통의 뚜껑을 열고 실제 부모님이 결혼했던 날, 내가 태어났던 날, 동생이 태어났던 날을 떠올려보면 모든 것이 푹푹 썩어가고 있다고 표현합니다. 아마 우리가 챙기는 기념일이 원래의 의미를 잃고 형식적인 축하하는 날로만 남아 있는 것을 꼬집은 시가 아닐까 짐작해 보는데 사실 말하고자 하는 바 보다 표현 형식이 재미있어서 함께 읽고 싶었습니다.

<PPT 37쪽>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발표입니다. 사실 저는 잘 알거나 좋아하는 여성 시인이 단 한 명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발표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 시인들의 시세계를 왜곡해서 전달할지도 모른다는 걱정과 불안함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대단한 시인들의 시를 일부나마 학우분들과 함께 읽을 수 있고, 어떤 시를 읽을지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누릴 수 있어서 감사하기도 합니다. 오늘 저의 발표로 이 시인들의 시세계를 이해하는 데에 그치기보다는, 학우분들이 이 시인들에게 관심을 갖고 이들의 시세계를 스스로 탐구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